

11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누가복음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11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누가복음 · 참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1

2010
November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누가복음 1장	2 누가복음 2장	3 누가복음 3장
7 누가복음 7장	8 누가복음 8장	9 누가복음 9장	10 누가복음 10장
14 누가복음 14장	15 누가복음 15장	16 창세기 9장	17 창세기 10장
21 창세기 14장	22 창세기 15장	23 창세기 16장	24 창세기 17장
28 창세기 21장	29 창세기 22장	30 창세기 23장	

December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누가복음 4장

5 누가복음 5장

6 누가복음 6장

교회 주요일정

11월 7일

제7차 성찬식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11 누가복음 11장

12 누가복음 12장

13 누가복음 13장

나의 주요일정

18 창세기 11장

19 창세기 12장

20 창세기 13장

25 창세기 18장

26 창세기 19장

27 창세기 20장

- 1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2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흔히
우리의 삶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다.
참된 감사는 십자가에 기초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표인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십자가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독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누가복음 1장 · 찬송가 104장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예수'란 헬리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며 보통 '여수아'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와의 구원'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인류 구속을 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당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했으며, 키운 후에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순복해야 했습니다. 후에 마리아가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금 이것을 깨우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눅 2:49). 예수님의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자라 큰 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큰 자가 되지 않으셨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큰 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큰 자가 되셨으며, 많은 학문이나 영웅적인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큰 자가 되셨습니다(빌 2:8~11). 이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목표로 살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만 인정받는 목표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실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굿간의 구유에 나신 사실은 메시아의 겸손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때에 마침 호적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여관이 가득 찼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여관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굿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성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서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의 이런 처지를 아무 데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눅 9:58). 예수님의 이러한 비천한 신분으로서의 탄생과 삶은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자들의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최저의 비천한 자리에까지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 2:7)

기도제목

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 찬송가 95장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셨던 변화산 산상에서(마 17:5), 그리고 수난 주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요 12:28) 또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중간과 결말에 반복하여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격려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부의 음성은 장엄한 음성이요 영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한 대상, 즉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와 진리를 모두 성취하여 완수하는 기쁨의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세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며,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복음 증언하는 길을 걸으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여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여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탄은 항상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를 악한 길로 유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합니다(약 1:13~15).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할 죄의 종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 되게 하라”(3절)고 시험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 주며 자신을 섬기라고 시험합니다(7절).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라고 시험합니다(9절).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12절).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시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눅 4:8)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맛보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옹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1절). 이제 막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신 후에도 무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하십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였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 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라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비록 억지 같은 말씀일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지난 밤의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심지어 자신만의 생각이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까? 말씀 속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비밀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눅 5:11)

기도제목

- 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안식일의 주인

누가복음 6장 · 찬송가 43장

6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 그 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오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6~11절).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십계명에 규정된(출 20:11) 날로써 매우 중요한 성일입니다. 하지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써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한 것을 예표하며(창 2:1~3),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신 5:15)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휴식을 위한 날로써(출 20:1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예표합니다(히 4:3).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왜곡시키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은 율법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비난에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문자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 주십니다(“다윗의 예.” 삼상 21:1~6).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빠 움직이며 교회 일과 행정에 마음을 쏟다가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놓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눅 6:5)

기도제목

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감사의 출발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매이게 될 때
 우리는 삶에 파묻혀 감사하는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는 자기 의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와 원망이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순간마다 원망하고픈 본성이 살아나겠지만
 그들은 곧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으며,
 그들의 손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참된 감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 · 찬송가 314장

7

주일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받지 아니한 불청객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38절). 이 모습을 지켜 보며 바리새인은 마음에 큰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부르시며 비유로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의 탕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42절).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요 3:1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끔찍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찾으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자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둘 중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눅 7:42)

기도제목

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날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제7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복음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밀려오는 광풍 앞에서는 여지없이 두려움으로 인해 떨며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24절).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25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대자연마저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마 16:16)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요 1:1).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많은 수치를 친히 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빌 2:5~8).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눅 8:25)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57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58절). 예수님께서서는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62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세는 준비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기도제목

- ①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우선 순위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38절). 이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고(40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합니다(39절).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십니다(41~42절).

마르다의 관심사는 일하는 데에 있었고, 마리아의 관심사는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적인 형식이나 결과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에 목마르기 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교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좋은 편을 택하는 일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눅 10:39)

기도제목

① 내가 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누가복음 11장 · 찬송가 204장

11

목요일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지켜보던 군중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14~15절).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탄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군중들은 혼란스러워 하며,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분쟁하는 집안이 무너지는 예를 말씀하심으로써 군중들의 혼란을 해결하십니다(18절). 예수님께서서는 말 못하게 된 한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에 의해 제압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21~22절).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 중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정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27절). 여인은 참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28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자신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 매일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눅 11:28)

기도제목

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실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천국을 소망

누가복음 12장 · 찬송가 492장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적대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핍박은 필연적입니다(1~12절). 중반부에는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온전치 못한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13~34절). 계속해서 주님은 천국 도래의 결정적 계기가 될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35~59절).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종말에 대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35~48절). 마지막 날까지 복음으로 인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49~53절).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54~59절). 복음은 이 땅에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물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기도제목

① 넓은 길을 걷기 위해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안식일 치유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주님과 논쟁했습니다(10~17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가미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 법의 본질은 무시하고 형식만 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이는 안식일을 범함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임을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두 비유는 천국의 도래가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나 이후 온 땅에 확산될 것을 암시합니다(18~21절).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22~30절). 구원받을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직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31~35절).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29절)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눅 13:16)

기도제목

① 교만함 속에 있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회개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김장을 담그며



지인이 강화도에서 기른 무공해 배추라며 배추 한 박스를 들고 왔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반갑기도 했지만 일을 싫어하는 나에겐 또 하나의 일거리만 늘어 난 셈이었다! 한 통은 날로 된장을 찍어 먹고, 나머지는 김치를 담기로 하고 칼로 배추를 쪼개기 시작했다.

‘짜~악’ 소리가 난다. 더러는 속이 부스러져 땅에 떨어진다. 노오란 속살이 짙은, 정말로 맛있게 생긴 배추다. 아주 맛있게 생긴 노란 배추 속을 뜯어 입에 넣으니 ‘와~’ 정말 달고 맛있다. 된장에 찍어 먹을 배추를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물에 씻으니 한 잎 한 잎이 빛을 발하며 제 모습을 뽐내는 듯 더욱 싱싱하게 살아난다. 남은 배추들을 4~6등분으로 쪼개 소금물에 담그며, 유난히도 속이 짙은 것들은 그 위에 소금을 덧뿌린 후 소금물 속에 더욱 꼭꼭 눌러 뒀다. 저녁에 백 김치, 빨간 김치, 보쌈 김치를 위한 양념들을 대강 준비해 두었다.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전에 소금물에서 어느 정도 숨이 죽어 있는 배추들을 골고루 절여지도록 아래 위로 섞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니 소금물에 푹 담겨진 배추들은 싱싱하던 모습은 간 데 없고 배추 한 잎 한 잎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잘 절여진 배추를 원하는 김치로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양념들로 속을 집어넣었다. 내가 양념을 넣는 대로 싱싱한 배추는 간 곳 없고 새로운 모습의 맛깔스러운 김치로 태어난다. 김장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며 문득 나의 믿

음을 돌아보았다.

“주님! 나도 이 배추들처럼 성령의 소금물에 완전히 담가 주소서.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내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도 싱싱해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방 부숴지고 상처가 나고 소리가 납니다. 게다가 저 잘났다고 뽐뽐하게 고개 들고 있는, 소금물에 들어가지 못한 싱싱한 배추 같은 저입니다. 주님, 칼로 쪼개시고 성령의 소금물에 담그소서. 위에 있는 교만한 것들 아래로 아래로 내리고 내리소서. 그래도 포기 못하는 자만과 가증한 입술과 외식과 가식의 행위들 위에 소금을 덧뿌리시어 완전히 소금물에 절이시고 절이셔서 부드럽게 만드소서. 그리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잘 절여진 배추 되게 하소서. 내가 완전히 빠져 버린 성령의 소금물에 잘 절여진 배추되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김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소서. 때로는 담백한 백 김치로, 때로는 매운 김치로, 때로는 작게 자르셔서 나박 김치로, 많은 양념을 첨가하시고 예쁘게 싸시어 보쌈 김치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맛난 김치 되게 하소서!”

무명의 성도

2009년 12월 13일 주간총현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안식일의 수종 병자 치유사건이 나옵니다(1~6절). 중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잔치에 참석하시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에 대해 교훈하십니다(7~24절). 예수님은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지만 많은 이들이 육신적 문제에 얽매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욱 못한 자들을 강권하여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는 대신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에 빠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의 제자된 자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각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25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끄시는 제자의 삶은 엄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는 천국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며 핍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사탄의 엄청난 압력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7)

기도제목

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우선순위에 주님만 있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누가복음 15장 · 찬송가 527장

15

월요일

주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얻음에 대해 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얻는 사실을 보여 주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의 비유(1~7절)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8~10절)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가출한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1~32절).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기에 앞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휘하시어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위한 구속의 법을 세우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죄인 각자가 회개하고 구원얻는 전 과정을 보여 줍니다. 우리 각자는 탕자 비유의 전반부가 보여 주는 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의 모습, 이런 고통 중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까지의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20절)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기도제목

① 그 크신 주의 사랑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 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9절)는 언약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1,8,11~17절)을 역설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베풀시고 그대로 실행할 것임을 강조해 주는데,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그 누구의 언약이 아닌 “내 언약”(9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서로 같은 입장에서 계약으로 어느 쪽이든 이를 어길 때에는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9,11~13,15~17절) 나옵니다. 이 언약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12~13절)을 주심으로 물 심판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자 십자가 언약의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말씀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말씀이 15절에 이어 16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언제나 신실하게 준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를 막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으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창 9:9~10)

기도제목

① 영원한 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많은 사람의 이름들과 땅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1절). 이렇게 10장 자체로만 보면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들이 충만하게 거한 ‘그 땅의 이름’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약속’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여호수아에서도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족보 형태를 띤 나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살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됨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은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창 10:32)

기도제목

① 나의 삶에 계속하여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흠어짐 속에서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이 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1~9절까지는 ‘흠어짐’이, 그 뒤에는 데라의 족보를 열거함으로 아브람에 대한 ‘선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부르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흠어져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힘을 지니기 위해 흠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계획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흠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를 이루어 갈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흠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의 의도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데라의 후예를 언급하면서 드디어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한 인물 아브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입꾼을 찾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예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9)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속사의 새로운 장으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손과 기업,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장차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로 인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소명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람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명령에 아브람은 순종하였습니다(4절).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아브람은 아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창 12:4)

기도제목

① 나의 판단 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 사이에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아브람 부부에게는 조카 롯이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 의지하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으로 인해 생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정하게 함으로 롯을 분가시켰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을 택한 것은 육신의 안목을 좇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가정이 떠나 버리고 난 그 빈 자리로 인해 아브람 부부는 무척이나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14~16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창 12:1~2). 아브람에게는 지금 땅도 자손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났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 버린 아브람의 빈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깊은 삶의 공허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빈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공허한 마음과 영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창 13:14)

기도제목

①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 됨을 고백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임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회개 기도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내 실속만 챙긴 예수 장사꾼입니다.

나는 예수 피 값으로 산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위선과 외식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퍼뜨린 거짓 선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 칭송받은 영광 소매치기입니다.

내 정욕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 내가 자아의 왕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임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스러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께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자책하고 사죄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고 청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님(Lord)이시고 나의 구주(Savior)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적인 계산으로 삶의 터전을 선택하였던 롯은 그만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살던 당시 싯딤 골짜기 근처에는 아홉 왕들이 각자의 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네 명의 왕들이 그돌라오텔을 섬기다가 배반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롯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롯으로부터 서운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뒤를 쫓아가 롯을 구해 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른 아브람이 이 일을 계기로 매우 귀하고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찾아 기쁨 가운데 귀환하는 아브람에게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조카 롯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과 또 그 싸움이 분명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십일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생명을 걸고 얻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20)

기도제목

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 모든 것 드리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람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결과 자신이 얻은 대가는 없고 오히려 그들의 반격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은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과 언약을 소개합니다. 먼저 커다란 불안감에 직면한 아브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1절).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 주시면서 아브람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6절).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람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만일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쪼개진 고기와 같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로만 약속하셔도 되셨지만,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체결한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될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창 12:4). 그로부터 십 년 후, 아브람이 85세가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그로부터도 15년이 더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주어졌으니(창 21:5)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도 아브람은 자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인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얻으라고 아브람을 권유하였습니다.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아브람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보다는 아내 사라의 말에 따라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의 고백 중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11절)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셨다는 의미 외에도 그녀가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살피시는 하나님”(13절)이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또는 ‘나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절망 중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및 약속을 받고, 그분을 뵈은 감격에서 참회의 마음으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명하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고 함이라”(창 16:13)

기도제목

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5절).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10절)고 하시는 순종의 삶을 요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의 삶의 요청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과거와는 철저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7,13절)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7절)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9절)고 명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창 3:15)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혈통상 그의 직계 자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인간들에게도 적용될 것임을 뜻합니다. 이 언약을 인용하여 초대 교회 당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행 3:25), 스테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행 7:8,17,32절)을 빌어 영원한 언약을 증언하였으며, 사도 바울 역시 이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행 13:26).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앞뒤로 웃던 아브라함(17절)을 만나 주셨듯, 넘어지는 자인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 주시며 베드로, 스테반, 바울처럼 영원한 언약을 증언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16~21절).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간곡한 중보의 기도를 여섯 번 드렸습니다(22~33절). 특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혈육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에서가 아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절한 모습은 죄인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믿음의 성도들 역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기도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와 영혼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창 18:32)

기도제목

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죄로 인해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왔으며 유황불에 의해 철저히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사건을 단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고학적 자료들은 당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죄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시는 (25절) 가운데 롯을 내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29절) 때 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엮어 멸하시는 중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과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 멸망당하는 비극이 없도록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창 19:29)

기도제목

①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라함은 과거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했던 거짓말을 다시 한 번 아비멜렉 앞에서 행합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비멜렉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얻은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8~18절). 결국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도덕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역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는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놓인 성도들을 지켜 주시며, 비록 실패하여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숨겨 주시고 덮으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기 원합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창 20:2)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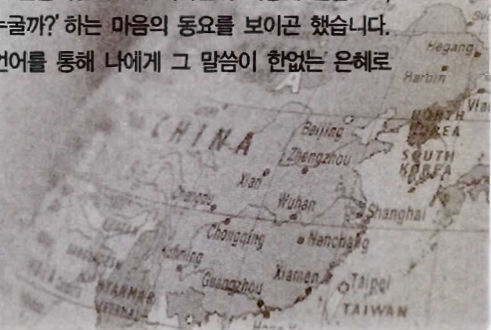
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때 만났던 영혼들, 그 얼굴들

집을 기웃거리다 지나치거나 삼삼오오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잠시나마 두려움이 스칩니다. 막연히,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를 복합적이고 아주 미세한 감정이 잠깐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즈막이 '주님'을 마음 속으로 불러 뵙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다가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내가 전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소한 말 때문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건만 나 또한 선교지 말로 증거되는 복음을 그들과 함께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과 수줍음으로 배시시 웃던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변하고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에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곧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탄청을 부리거나 못 알아듣는 말로 강경하게 주장하는 그들의 혼을 부여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전하면 그들은 눈빛이 흔들리면서 '저 외국인이 저렇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마음의 동요를 보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전도언어를 통해 나에게 그 말씀이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들어봤다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겠다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영접기도까지 두 손을 모아 또박또박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금도 첫 선교지에서 있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군복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벗고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던 내 또래의 청년, 복음을 듣고 외면한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던 내 아이 또래의 소녀...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천국에서 그 영혼들을 반갑게 다시 만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더 늘어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영혼들을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정종원(집사, 23교구)

2009년 11월 8일 주간충현



언약의 후손을 얻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기쁨,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한 것에서 당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 기다림만큼 어려운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품는 인내와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그분의 재림을 통한 천국의 영광을 인내하며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삭(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반부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8~21절).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갈 4:24).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은혜와 율법으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갈 4:22~31)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후손인 이삭은 육체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22절)하는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언약의 자손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창 21:5)

기도제목

① 믿음으로 인내하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

창세기 22장 · 찬송가 342장

하나님은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마도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 최대의 고비이자 가장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으며, 모리아산까지 가는 사흘 길 동안에도 일관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큰 고통과 언약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결코 쉽게 되어진 일 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요 아픔이었는데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삭이 죽음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 역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신비이자 역설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총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총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소유를 통해 장차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사를 위해 당시 철기 문명을 배경으로 급 성장한 헷 족속의 영토인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5). 특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장지로 매입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상 장지는 개인이 아닌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유업으로 물려지는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요셉까지 여기에 묻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막벨라 굴은 성도의 죽음이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약속의 위대함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의 매입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창 23:19)

기도제목

①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11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감사



십자가 감사

참된 감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주님께 우리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한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참 감사로 넘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십자가 감사, 나의 감사! 

11월 5일 고린도전서 11:23~34

성찬식의 목적 The Purpose of Communion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라

11월 12일 사도행전 16:6~15

루디아 Lydia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11월 19일 욥 1:21~22

믿음의 삶 Life of Faith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11월 26일 누가복음 21:1~4

과부의 헌납 The Widow's Gift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라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씀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11월 5일

1 과

성찬식의 목적

| 초점 |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라

| 찬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1:23~34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²⁵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²⁶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주의 만찬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신자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에 기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이 거룩한 성찬예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저녁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눅 22:15~16 _____

눅 22:19~20 _____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지금 우리가 성찬식으로 부르는 주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4~25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데에 떡과 잔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 놓으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유월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 1:29

계 5:11~13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을 먹으며 이 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_____
_____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일 2:28 /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눅 21:34~36 / 너희는 _____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_____ 하시니라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성찬식을 위한 나의 준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살피라

성찬식의 목적은 나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전 11:27~32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임을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롬 3:10,23).

요일 1:9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 하게 하실 것이요

롬 3:24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의 탄식을 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성찬식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해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진심어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고전 11:27~29 /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_____

행 8:22 _____

| 믿음의 기도 |

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게 하소서.
2. 세상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11월 12일

2과

루 디 아

| 초점 |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 찬송 |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문 | 사도행전 16:1~15

⁶³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⁶⁷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 ¹⁴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¹⁵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 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두 번째 선교사역을 아시아에서 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은 이를 막으셨습니다(행 16:6).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7). 아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행 16:9~10

이에 바울은 유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에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사역을 도울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때 그는 유럽에서의 차가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 곳에서 유대 여인들을 만나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 루디아로 불리는 아시아에서 온 이방여인을 만났습니다.

행 16:14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찾았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 루디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누어 보십시오.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도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깊은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렘 29:13 _____

잠 8:17 _____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왔으며 종교와 상관없는 장사를 하였던 이 이방 여인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루디아는 구원을 찾았다

루디아는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행 16:15 _____

루디아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영접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벧전 3:21 _____

갈 3:27 _____

루디아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려 있습니까?

※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를 비교하여 나누어 보십시오.

루디아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루디아는 참 복을 찾았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행 16:15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녀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믿음의 명백한 증거로 그녀는 바울과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오랫동안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행 16:40 / 두 사람이 □에서 나와 □□□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 2:4

루디아는 다른 신자들과 친교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선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아시아 여인이었던 루디아는 유럽에서의 첫 개종자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탁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 바울을 보내는 대신 루디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전 16:19~20

벤전 1:1 /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
☐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은 바울에게 루디아에게로 가서 도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열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 십자가를 붙들며 매순간 복음을 위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소서.

2010년 11월 19일

믿음의 삶

| 초점 |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 찬송 |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본문 | 욥기 1:21~22

²¹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²²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던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으며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욥 1:3).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신앙의 온전하고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욥 1:8). 어느 날 욥은 네 명의 사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 욥이 들은 4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설명해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욥 1:21~22)

11월은 우리 교회가 감사에 초점을 두는 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고통과 슬픔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쉽게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욥은 그러한 충격적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님은 삶의 근원

옴은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옴 1:21 /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_____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옴은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주님이 주십니다. 부모들은 단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
님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옴은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은혜로 가능
했음을 알았습니다. 옴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즐겁고 행복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약 1:17 _____

※ 내가 가진 소유물과 자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
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기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삶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삶의 주권자

옳은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욥 1:21 /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_____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실로 길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진실로 짧은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
는 영원한 삶을 보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긴 시간들도 시간에 제
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단지 하루일뿐입니다.

시 90:4 _____

시 90:10 _____

옳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
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날마다 점
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으시다

옴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변함없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옴 1:21 /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_____
_____ 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
나님을 찬송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옴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천국에 이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16:24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 하고 자기 ☐☐☐ 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
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
다. 만약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빌 2:14~15 _____

빌 2:8 _____

골 2:14 _____

자신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바꾸어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갈보리의 예수님, 그분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의로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 7:10 _____

골 3:16~17 _____

11월은 특별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우리 구주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불평을 멈추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소서.

2010년 11월 26일

4과

과부의 헌납

| 초점 |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라

| 찬송 |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본문 | 누가복음 21:1~4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보시고 이에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매우 가난한 과부라는 것과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납했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과부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막 12:41~44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게 했다

이 과부의 믿음은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눅 21:1~2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기에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지 보여 주기를 원했지만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보여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주님께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과부가 성전에 나아간 이유와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를 비교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고, 너무 힘들게 일해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그녀는 돈이 없어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부요했습니다.

헌금을 드렸다

이 과부의 믿음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눅 21: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헌금을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실질적으로 많은 헌금을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참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린 헌금을 계산하며 따지지만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참 신자들은 영적으로 위대한 기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앓은뱅이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다니엘도 가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단 6:24~26). 과부의 헌금은 영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 과부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게 했습니다.

눅 21:4 /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신 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가장 큰 헌금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의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 나의 전부를 드린 적이 있는가? 또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기 전 겪었을 내적
갈등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녀의 헌금은 자신이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합니다.

※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가사를 읽어 본 뒤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과부의 헌납은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그녀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헌납한 그녀의 삶은 빈궁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마 6:20~21 _____

약 5:2~3 _____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계산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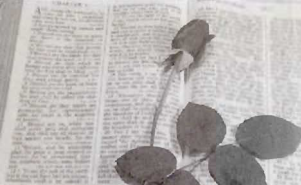
| 믿음의 기도 |

1.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믿음의 삶

⁽²¹⁾ 이르되 내가 모래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²²⁾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21~22)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욥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던 참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으며 그 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욥 1:3).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신앙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어느 날 욥은 네 명의 사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환은 그에게 모든 소와 나귀 그리고 그것들을 보살피던 종들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환이 또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과 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환이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사환이 와서 또 다른 원수들이 와서 모든 낙타와 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사환이 와서 그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던 집이 거친 바람에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욥 1:20).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선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충격적인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그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월은 우리 교회가 감사에 초점을 두는 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신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고통과 슬픔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쉽게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하나리”(요 1:22). 어떻게 욥은 그러한 충격적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왜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삶의 근원

욥은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요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주님이 주십니다. 부모들은 단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은혜로 가능했음을 알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즐겁고 행복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17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기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여러분 삶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삶의 주권자

욥은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요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고 받는 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생명이 길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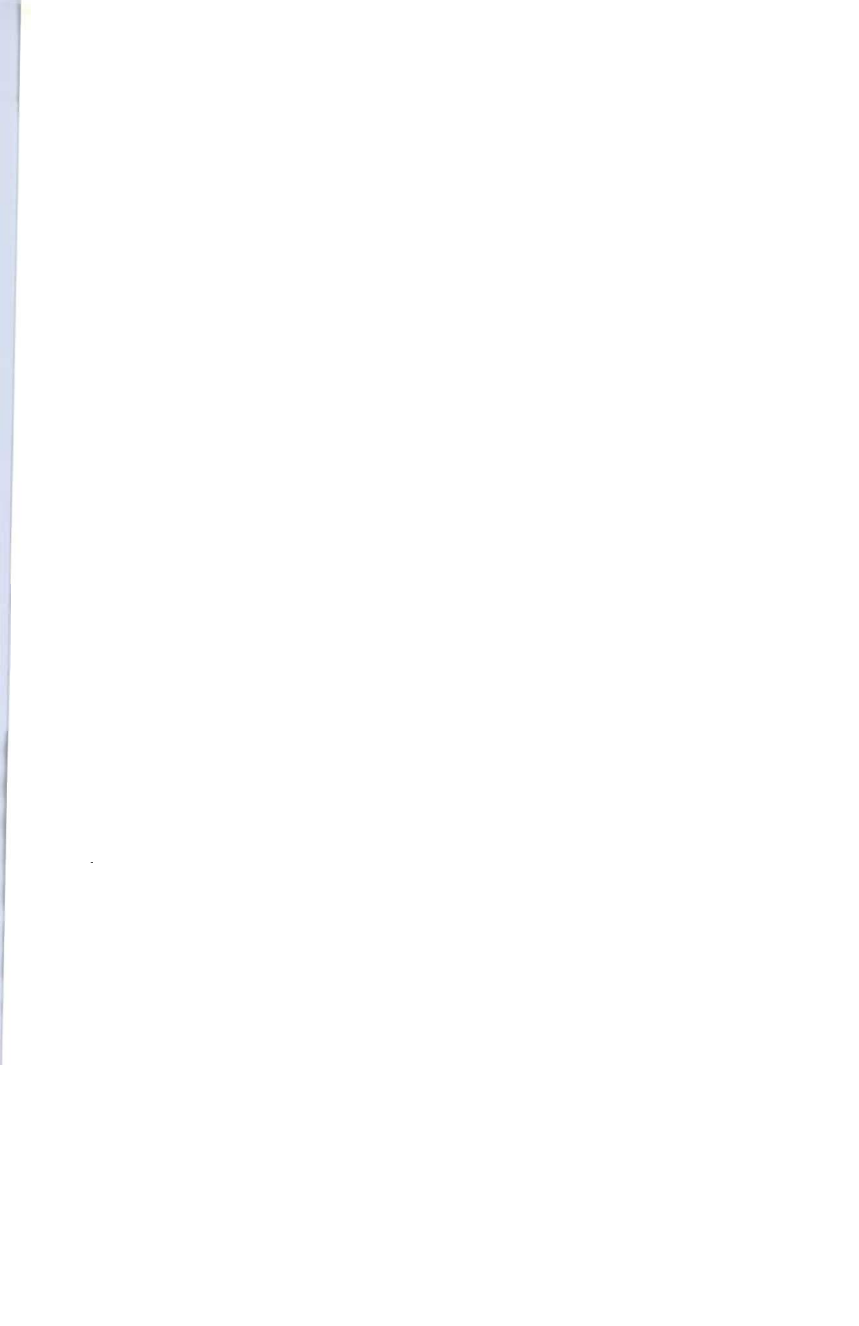
고 미래가 확실하다고 느낄 때 생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너무 길게 느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실로 길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진실로 짧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보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긴 시간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단지 하루일 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시 90:4). 생명의 연장은 득실이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욥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으시다

욥은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변함없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의 찬송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천국에 이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하나님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

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께 나아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욕심들을 깨뜨리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4~15). 예수님은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바꾸어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의로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특별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 우리 구주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불평을 멈추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11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